



불안한 마음 잘 읽어주면 빨리 나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홍 스님이 수술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황길씨를 달래주고 있다.

병원 포교 24시

지홍 스님 동행기

서울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유머가사의 말처럼, 병원 법당이 그랬다. 병마와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환자의 이름은 그대로 부처의 그것이었다. 그래서일까? 비구니스님의 손길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과 같았다. 자상함이 병원 곳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앞둔 4월 6일과 7일, 15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포교활동을 벌여온 지홍 스님(서울 정향사 주지)의 하루를 동행했다.

"기자님! 전화 한 통화만 더 하고요."

벌써 10분 쯤이다. 말문도 못 열고, 머쓱한 시선만 허공에 뿌렸다. 통화내용에 귀를 가져다댔다.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며칠 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짧은 목소리. 스님은 듣고만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환자와 보호자들의 '다급함'과 '기쁨'이 스님을 기다렸다. 간 종양을 앓는 남편의 절망을 끌어안은 아내의 절규, 부처님 가피력으로 간암을 이겨내 퇴원했다는 중년의 남자. 법당은 역설적이게도 회비

잠시라도 쉴 틈이 없다. 밤에 자다가도 병원에서 호흡이 오면 뛰어나간다.

빨갛게 낮빛이 다가오를 즈음, 환자 보호자가 법당에 들어섰다. 축 처진 어깨에 무겁게 근심이 내려앉은 보호자에게 스님이 한마디 던졌다.

"보살님, 세상살이에 근심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요. 그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부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불안한 남편의 마음 한 구석을 읽어주세요. 남편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세요."

30분이 지났을까? 스님은 시계를 연신 쳐다봤다. 눈치가 병실방문 갈 시간이었 했다. 스님과 함께 15년간 자원 봉사활동을 한 송법입화(61·서울 신현동)씨가 <한글 법요집>과 관세음보살이 새겨진 축원카드를 주섬 주섬 챙겼다. 17층 435호 내과병동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환자 상담을 마친 스님은 곧바로 장삼 가사를 챙기고, 종종 걸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스님이 병실에 들어서자 환자들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번졌다. 환자들이 일일이 손 잡고 이야기를 나눈 스님은 담석 수술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황길씨(46·원주시 수암리)의 복부를 쓰다듬었다.

"수술 한다며? 기도해 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가 이어지자 황씨가 두 눈은 지그시 감은 채, 합장을 했다. 이내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을 움츠렸던 마음과 몸이 편안해졌다. 병실에서 우연히 법당소식지를 보면서 알게 된 스님과의 인연. 너무도 고마워 스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법당으로 돌아온 스님.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이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미소만 지었다. 중생들이 힘들 때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스님의 손길은 환자와 주고받는 수행담 노트에 답글을 남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바쁜 일과로 미처 만나지 못한 환자들이 글로 남긴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였다. 글=김철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오전 11시 '쾌유발원' 기도법회를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평균 50회 넘게 상담 이어져 불교행사 주관, 임종봉사 등 실틈 없는 '슈퍼우먼' 일일이 환자들 만나 아픈 부위 어루만지며 쾌유 기원



환자 보호자와 상담 중인 지홍 스님.



불교행사 준비에 바쁜 스님과 환자들.

가 순식간에 교차했다. 중생의 삶이 이런 것일까? 오전 11시 '쾌유 발원 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간헐한의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다. "병원은 생생한 수행과 포교의 현장이죠. 병고와 죽음의 괴로움을 앓는 중생의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기 때문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천 개인 것처럼 제 손도 천 개 가 됐으면 좋겠어요."

법당의 일과는 빠듯하게 돌아갔다. 절집 일을 부리나케 마치고 오전 10시 출근(9)을 하면, 하루 평균 50차례가 넘게 환자상담이 줄줄이 이어진다. 잠시 숨을 돌리고 곧장 수술 날짜가 잡힌 불자 환자들의 병실을 방문한다. 요즘은 봉축 행사 준비까지 겹쳐 병실이 연등 만드는 일에도 바쁜 손을 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스님에게 붙은 별명이 '슈퍼우먼'. 임종봉사, 뇌사판정위원회 활동 등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전국 병원법당서 포교하는 비구니스님들



국립경향병원 법당 지도법사 해광(서울 잠나선원장)·무관 스님. 사제시간인 이들 스님은 15년째 매일 500개 병상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스승은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제자는 쾌유 기원 기도를 올린다. 특히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전경과 의경인 점을 감안, 신체대 유행음과 CD 등을 입원한 전·의경들 병상 머리맡에 놓아준다. 전·의경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씨앗'이라는 것이 이들 스님들의 생각 때문이다.

전남대 화순병원 지도법사 일장 스님(화순 유마사 주지)도 동국대 경주 병원 등에서 10년 넘게 병원 포교를 하고

있다. 2003년 전남대 화순병원 개원과 함께 활동 중인 스님은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아예 병원 근처로 이사 온 '자취생 스님'도 있다. 서울보훈병원 지문 스님과 중앙대 병원 지현 스님. 따로 머무는 절이 없다. 병원 법당이 집이자 수행처인 셈. 지문 스님은 새벽 4시면 출근(9)하고, 늦은 저녁에야 강동구 등촌동 자취방으로 돌아온다. 이리기를 13년째다. 스님은 간병인불자회인 '보은회'도 만들어 환자와 함께 해왔다. 지현 스님도 마찬가지. 지난해 병원 측에 반대에도 어렵게 법당 문을 열고, 환자들의 불심 키워주기에 병원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처럼 병원 포교에 전력 중인 스님들의 역량은 자원봉사조직 운영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서울 경희의료원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6년 전 불교호스피스 '불교비바라'를 결성해 열혈공양과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업무를 돌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불교비바라가 90% 이상을 소화한다. 동국대 경주·경주한방·포항병원 3곳의 종립병원을 맡고 있는 무구 스님(동대 경주병원 약사전 주지)도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다. 지난 2003년 동국대학원 재단에서 파견 나온 스님은 특히 지역 사찰의 신도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병원 봉사는 재가불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서울대화병원 은진 스님(청량리 청량사는 18년 넘게 병원에서 살다보니 의료직이 워만한 의사 수준 뺀다.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환자들 마음의 편안해 지도를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은행석 온열복대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아들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할 수 없이 백색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갖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수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血분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이렛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문의전화 : 타타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권장하지 않는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백색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입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은행석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아혈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이 백색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건강에도 최고!
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氣

가격 245,000원